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9명 대참사... 지옥이 따로 없다

(밤10시 30분 현재)

1층 불길 순식간에 번져
사우나에 갇혀 대형참사
총리, "최선 다하라" 지시

21일 오후 3시 50분께 발생한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로 현재 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이날 오후 9시 충북소방본부가 현장에서 실시한 공식 브리핑에 따르면 50대 여성 등 29명이 사망했고, 26여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자 중 15명은 2층 목욕탕 수색과정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하에서 시작된 화재의 유독성 가스가 계단을 타고 폐쇄구조의 2층 사우나로 집중되면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소방당국은 현재 진화작업을 마치고 건물 고층으로 수색작업을 확대하고 있다.

불은 전기 공사를 하던 1층 주차장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8층 건물 전체를 뒤덮었다.

불이 나자 소방대원 등 494명이 투입됐지만, 불이 삼시각에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건물 내부에 있던 수십 명이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일부는 비상구로 탈출했으나, 일부는 출입문이 잠겨 나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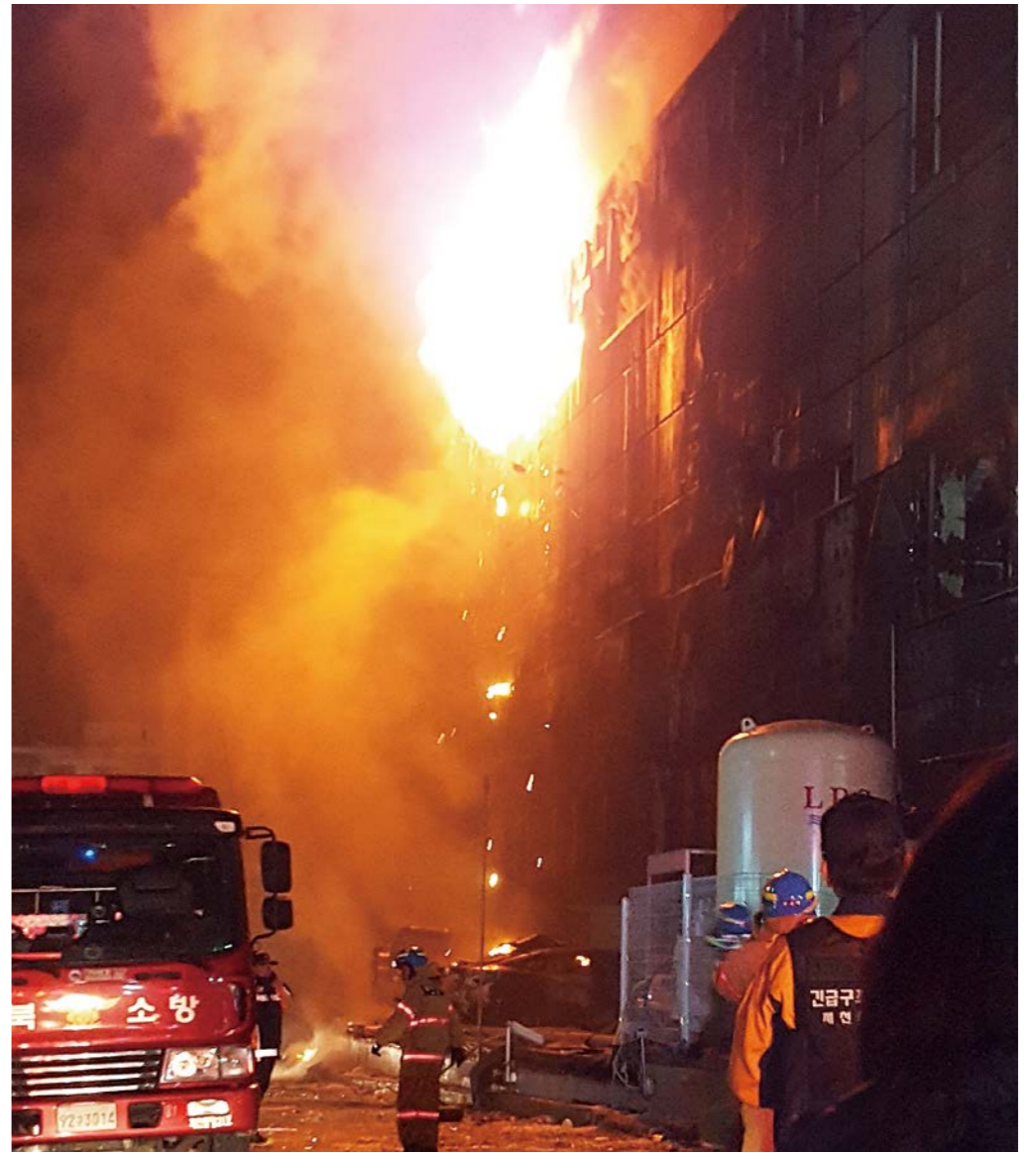
못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오고 있다.

이 건물은 1층 주차장, 2·3층 목욕탕, 4~7층 헬스클럽, 8층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화재와 관련해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 인명구조에 나설 것을 긴급지시했다.

이 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등은 관계부처와 함께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어 "특히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통제, 주민 대피 안내, 건물 내 수색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뉴스사



21일 오후 4시께 화재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다.

정유년 경북도 과수 만루홈런 쳤다

과수통합 시장거래 판매액
4200억 돌파 금자탑 세워
도, 유통구조개혁 적극 추진

2017 정유년 경북 과수가 만루홈런을 쳤다. 경북도의 과수 통합 시장 거래 판매액이 4200억원을 돌파하는 금자탑을 세웠기 때문이다.

올 11월 기준 과수 통합 시장거래 취급액은 420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56억원 보다 5.3% 증가했다.

취급물량도 17만2000톤으로 전년 13만 8000톤 보다 24.6%정도 늘어났다.

농산물 산지유통조직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는 셈이다.

통합 시장 관리에 참여한 산지유통 조직의 수취가는 사과와 경우 kg당 265원 정도 높았다.

결국 농산물 통합 시장 관리가 농가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북도가 육성하고 있는 과수 통합상표 'daily'는 11월 현재 431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214억원 대비 2배 이상 성장했다.

경북과수 통합상표 'daily'는 사과, 복숭아, 자두, 포도를 대상으로 도내 16개 시군 39개 산지유통센터에서 공동선별로 품목별 상위 50% 이상 되는 상품에만 부착되고 있다.

이 상표는 올해 도매시장과 대형유통업체 홍보, 호찌민 세계문화엑스포 참가 등 국내외 공격적인 홍보와 시장 관리로 '2017년 대한민국 대표 상품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때문에 경북도는 올해 농산물 통합 시장 관리 조직 육성에 96억원, 경북과수 통합상표 육성에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산물 유통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산물 통합 시장 거래와 과수 통합상표사업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통구조 개혁을 추진한다. 김성용 기자

동산의료원 응급실은 전쟁터

"연말에도 눈코 뜰 새 없어요"

지금 이곳은 병원 현장 보고서



"연말이 다가오지만 응급실은 1년 365일 초긴장 상태입니다"

21일 새벽 1시께 대구시 중구 계명대 동산의료원에서 만난 전공의 2년 차 천수민(30)씨는 환자들을 돌본 뒤 이같이 말했다.

수은주가 영하 3도까지 떨어진 이날 병원 응급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20대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70대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환자들로 넘쳐났다.

하늘색 의료 가운을 입은 채 정신없이 환자들 사이를 누비는 의사와 간호사들은 1분 1초가 아깝다는 듯 분주히 움직였다. 의료용 침대 위에 누워있는 30여명의 환자는 지친 듯 잠을 청하거나 시름시름 앓는 모습이었다.

천 씨는 "대학병원에는 매일 중환자들로 넘쳐난다"면서 "환자들이 건강하게 퇴원할 때는 뿌듯하지만 병세가 악화하는 경우는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곳 병원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하루 평균 200여명에 달한다. 수백명의 환자를 의사 4명과 간호사 10명 등이 돌본다.

겨울철에는 폐렴, 가슴 통증, 병원에서 넘어진 골절환자가 주를 이룬다는 게 병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간호사들도 바쁜 건 마찬가지다. 환자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돌본 뒤 자리로 돌아가 병원

컴퓨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한 의료진은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다가가 방사선(X-Ray) 촬영을 하느라 여념이 없다. 간호사 김지민(28·여)씨는 "근무 스트레스가 심하지만 환자들이 무사히 퇴원할 때는 정말 기쁘다"고 했다.

의료진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에 피로감을 호소하면서도 사망감을 가진다고 입을 모은다.

한 간호사는 "가끔 만취 상태에서 다친 분들이 험한 말을 하기도 한다"며, "2, 3교대 근무를 하면 인체가 낮아지고 밤인지 헷갈릴 때도 있을 정도"라고 애써 웃으며, 말했다.

응급실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들도 밤새 자신들을 돌보는 의료진에 고마움을 표했다.

보호자 김모(54·여) 씨는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환자를 하나하나 챙기는 것을 보면 대단하다"고 말했다.

오전 3시께 휴식도 잠시, 다시 119구조대에 환자가 연이어 실려 왔다. 복통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다는 60대 남성은 병원이 떠나갈 듯 비명을 질렀다. 순식간에 약속이라도 한 듯 의료진들은 모두 이 남성을 이송침대로 옮겨 응급실로 뛰어어들었다. 김진희 기자

내년 6·3 대구교육감 선거 무주공산



우동기 대구교육감
3선 '불출마' 선언
6개월 채 남지 않은
선거판도 요동친다

우동기(사진) 대구교육감이 내년 지선에서 3선 교육감 도전을 포기했다.

우 대구교육감은 21일 오전 대구교육청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교육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우 시교육감은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미래 대구교육의 틀을 갖춰 실천할 때"라며, "저는 오랜 숙고 끝에 대구교육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 새로운 지도력이 창출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평생 걸어온 교육자의 길을 3선 교육감이라는 영광과 명예로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며, "그러나 큰 도약을 위한 미래 교육의 패러다임(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은 새로운 지도력이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더 깊은 식견과 더 큰 역량, 그리고 넉넉한 미래를 품을 넓은 마음을 가진 분이 대구교육의 미래를 밝혀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저의 불출마 결정이 자랑스러운 대구교육을 위해 하나의 밑거름이 되는 창조적인 결단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우 교육감의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으로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대구교육감 선거 판도가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 교육감의 3선 출마와 당선이 유력시되는 분위기여서 내년 교육감 선거를 노리는 후보군들의 행보가 조심스러웠지만 우 교육감의 불출마 선언을 기점으로 이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 이태열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강은희 전 여성가족부 장관, 김태일 영남대 교수, 김사철 상원교 교장, 김사열 경북대 교수, 이윤갑 계명대 교수, 홍덕률 대구대 총장 등이 출마예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김진희 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살고 싶은 임대주택

경주산의 자연
숲속의 행복
저렴한 임대료

명품 아파트로 Upgrade

신기술·신공법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전체 LED 조명
테라스하우스

최초 최고 최신

도청이전신도시에 최초 건립
최고의 민간 기술력
최신 주거 트렌드

지역기업이 함께 짓는 아파트

지역기업 49% 이상 참여
명품 신도시 건설
지역경제 활성화

고급형 친환경 공공임대주택

경상북도개발공사 **Lucello** 와
코오롱 **하늘채** 의 만남

친환경 생태마을 / 편리한 생활공간 / 안전한 주거단지 / 최첨단 주거환경

공공임대주택의 가치를 높인다

대구시 미래산업육성추진단 성과 '눈에 띄네'

취업정보를 한눈에

달성군 종합일자리정보시스템 설치

달성군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과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청, 읍·면사무소 등 10개소에 사업비 1억8900만원을 들여 '종합일자리 정보시스템'을 설치했다.

종합일자리 정보시스템에는 일자리 지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구인정보 뿐만 아니라 어학시험, 국가자격시험 일정 등 모든 취업관련 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한다. 기업정보, 면접·취업가이드, 경력관리 및 회사생활 안내 등 구직자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김문오 군수는 "지금 달성은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으로기업체 입주가 줄고 있고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인구증가와 정착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는 필수적이다. 머지않은 '인구 30만 시대'를 준비하고 군민과 더불어 잘사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대구 북부도서관 리모델링 후 재개관

대구시 북부도서관이 리모델링 공사와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2일 재개관한다.

21일 대구시교육청과 북구청 등에 따르면 올해로 개관한 지 34년 된 북부도서관은 최근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료공간 부족과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시교육청은 예산 36억6000만원을 들여 전면 리모델링을 결정했다. 외벽과 창호, 냉난방기 등을 교체하고 내진 보강, 무선인식 기술(RFID) 등을 구축했다.

재개관하는 북부도서관 1층에는 어린이 자료실로 285㎡이던 공간을 422㎡로 넓혔다. 어린이 도서도 3만 여권에서 4만 여권으로 늘렸다. 아이패드, 교육용 올레 TV 등 첨단 기기를 활용 한 정보통신기술(ICT) 체험 환경도 제공한다. 2층은 리모델링 전 사용하던 책장을 재활용해 종합자료실을 꾸몄다. 3층에는 자율학습실과 평생 학습실, 북카페, 워터 등을 마련했다. 김현국 기자



대전공약 및 중앙과제 반영 9건 22일 기업간 융합과제 MOU체결

대구시는 초연결·초융합 4차산업혁명시대 준비를 위해 올 3월 출범한 미래산업육성추진단의 성과를 평가하고 2018년 계획을 발표하는 '미래산업융합컨퍼런스'를 22일 엑스코(그랜드볼룸A홀)에서 개최한다.

미래산업육성추진단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올 3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대구시가 발족해 150여명의 민·관·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거버넌스 기구로, 미래산업육성을 위한 컨트론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추진단은 물, 의료,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에너지, ICT융합, 로봇, 소재, 문화산업 등 미래전략 8대산업을 선정해 워킹그룹

운영을 통한 신기술 과제를 발굴하고 이종·동종 기업 간 매칭을 통한 융합기술을 개발해 신산업 및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술지원 및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해왔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32개의 미래산업육성과제를 발굴해 대전공약에 의료·자동차분야 4건, 중앙과제에 의료·자동차·문화산업분야 5건 등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번 미래산업융합컨퍼런스에서 기업 간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융합과제를 발굴해 3건의 MOU도 체결한다.

이날 체결 예정인 3건의 MOU를 통해, 첫째, ICT기업인 ㈜소소와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은 ㈜소소가 보유한 뇌파 등 생체신호 측정을 통한 졸음 예측기기를 자율주행자동차에 새롭게 적용시키기 위한 제품을 공동연구할 계획이며,

두 번째, 로봇기업인 ㈜유평터머시시스템, 기계분야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소재분야 ㈜티포원은 공동컨소시움을 구성, 폭발물 탐지 및 제거, 위험지역 정찰을 위한 모바일 로봇 플랫폼 전략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지역 대표 자동차부품기업인 ㈜평화정공과 부경테크, ㈜이도이엔지, ㈜KDM, ㈜반석 ENG 등은 로봇기업 간 협업을 통해 자동차 도어부품의 로봇자동화 공정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김연창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지원기관장, 분야별 워킹그룹 위원, 산업별 기업협의회 대표, 대학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 발표에 이어 주요 성과보고 및 계획, 산업융합 우수기업 사례발표 등의 순으로 개최된다.

한편, 내년 미래산업육성추진단은 미래

전략산업 8대 분야별 워킹그룹 활동을 강화해 지역기업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발굴·지원하고 기업·산업간 상생을 위한 융합 네트워킹을 활성화 해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대학과 협력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기업이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우리 대구가 4차산업혁명시대를 전국에서 가장 잘 준비하고 있다"며, "물·의료·미래형자동차·스마트에너지 등 8대 분야의 대구시 역점 미래전략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산업간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외국인 자원봉사자 선물나눔 행사

지난 19일 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산타로 분장해 수성구의 아동센터 및 보육원의 아동·청소년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Daegu's Time to Give라는 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원봉사자 단체가 참여했고 수성구청에서 이를 지원했다.

선물 기증 희망자는 선물 수집 역할을 맡은 봉사자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대구 전역에서 모인 선물은 다시 행사 총괄 봉사자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모인 선물은 분류 및 포장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성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및 보육원의 125명 아동 및 청소년에게 전달됐다. 류재현 기자

평창올림픽 성화, 27일부터 대구에서 올해 마지막 봉송

이색봉송 통해 시민들과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가 오는 29일 대구에 도착해 3일 동안 올해 마지막 봉송에 나선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는 대구 시내 전역 94km를 376명의 주자들과 함께 달리며, 성화가 간직한 열정과 희망의 온기를 시민들과 함께 나눌 계획이다.

29일 첫날엔 계명대학교 서서캠퍼스를 출발해 대덕시장을 거쳐 두류 야외음악당까지 35.9km를 달린다.

30일에는 달서구 두류공원을 출발해 수성구 만촌역과 라이온스파크, 동구 망우공원과 동대구역까지 37.3km를 이동하고 31일에는 동구 신기중학교과 북구 경북대학교 등을 거쳐 중구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까지 20.8km를 봉송한다.

2017년의 마지막 일정을 대구에서 보내는 성화봉송단은 다양한 이색봉송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기원할 예정이다.

30일 성화의 불꽃은 대구지하철 3호선 모래내역을 통해 이색봉송을 연출한다. 어린이회관역부터 수성못역 구간에서 진행되는 이번 봉송을 통해 대구 시내 전역을 조망하고 31일에는 제야의 종 타종과 함께 어우러진 봉송이 진행된다.

대구에서 진행되는 성화 봉송에는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을 비롯해 다양한 이들이 주자로 참여한다.

야구 국가대표 출신 이승엽 선수와 대구에서 활동 중인 구자욱 야구선수를 비롯해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과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건 안상미, 김성일 선수 등이 봉송에 나선다.

특히, 31일에는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3관왕을 차지한 진선유 선수가 성화를 들고 달리며, 가수 이승철이 마지막 주자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직 소방관과 응급구조사, 고등학교 교사, 지적장애 아들을 둔 어머니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참여해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이란 대회 슬로건의 의미를 실현에 동참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지역축하행사도 이어져 대구에 입성하는 29일엔 오후 6시부터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타악공연과 화려한 불꽃쇼 등이 펼쳐진다.

30일에는 동대구역 광장에서 퓨전국악과 전통놀이 '팔공산 메나리'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채로운 불거리가 제공되며, 31일에는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뮤지컬 갈라쇼와 타종행사, 가수 이승철의 축하공연과 대구시가 준비한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이희범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은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2017년 마지막 성화 불꽃이 대구에서 타오르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함께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응원하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평창을 밝힐 성화의 불꽃은 대구에서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포항으로 이동해 호미곶 해돋이를 시작으로 경주를 거쳐 경북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1월 5일부터 경기도 수원에서 봉송을 진행한다.

김진희 기자

대구시, 2017통계조사 '대통령 표창'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유일 최우수기관 선정

대구시는 2017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전국단위 조사 수행 과정에서 현장 조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정확한 조사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1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대구시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대구시는 올해 통계청에서 실시한 '전국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 등을 수행하면서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조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를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경제정책 수립과 산업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전국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는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우며, 조사 대상 사업체의 협조와 조사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야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이에 대구시는 올해 홍보매체를 다양화하고 주민 밀착형 홍보를 펼쳐 지역민들에게 통계조사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시켜 원활한 협조를 이끌어 냈다.

뿐만 아니라 시와 구·군이 서로 협력해 현지조사의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해결하고, 다년간 축적된 조사원 인력풀을 이용해 우수한 조사원들을 선발·교육해 현장에 투입한 것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이번 표창에서는 대구시의 대통령 표창 수상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대구 북구가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상하 기자

NCSI National Customer Satisfaction Index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DTRO 대구도시철도공사

2017 국가고객만족도 9년 연속 전국 1위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 전국 도시철도 1위!

대구도시철도공사는 1호선 개통 20주년을 맞아 '리뉴얼 20,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약'을 추진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에 절대안전과 최상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령-개진 도로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13.6km 2차 도로 완전 개통
6년간 642억 예산 들여 완공
농촌지역 삶의 질 완전 개선

고령군의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었다. 고령군 우곡면과 개진면을 잇는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 고령-개진간 도로건설공사가 완공됐다. 경북도는 21일 고령개진일반산업단지 입구에서 개통식을 가졌다. 개통식에는 김장주 행정부지사, 이완영 국회의원, 곽환한 고령군수, 박정현 도의원,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고령군 우곡면 연리와 개진면 양전리를 잇는 13.6km의 2차로인 이 도로는 6년간 642억 원(국비 448억, 도비 194억)의 사업비를 들여 완공됐다.

1차로였던 이전 도로보다 주행거리가 4km, 운행 시간은 10분 단축돼 관광객 증가와 물류비 절감이 기대된다. 이 도로는 광주-대구간 고속도로와 국도 26호선,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연결하면서 교통 소통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고령-개진간 도로 개통으로 도농 상생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이 기대된다”며, 지역 국회의원 및 공사관계자,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상주-영덕고속도로, 상주-영천고속도로 개통 등 최근 모습을 갖춰가는 경북의 교통망은 ‘SOC 없는 발전도 없다’는 확신으로 과감하게 투자한 결과다. 앞으로도 신도청시대 경북의 ‘사통팔달 전(田)자형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해 도민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1일 오전 고령개진일반산업단지 입구에서 고령~개진간 도로 개통식이 열리고 있다.

경북도, 과학기술 5997억원 투입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18년도 시행 계획 의결



경북도가 내년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시행 계획을 의결했다. 경북도는 이곳에 5997억원(국비 1990억원, 지방비 1468억원, 민간 2539억원)을 쏟아붓는다. 도는 21일 경북테크노파크 연구회실에서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열고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17년도 추진실적 및 2018년도 시행계획안’을 의결했다. 우병윤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8년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은 세부추진 과제의 실효성 확보가 관건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년 경북도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시행

계획은 정부의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2018-2022)의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당해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지역 R&D 투자 확대 △지역 R&D 기획·관리 역량 강화 △지역기반 경제·사회적 성과 창출형 R&D투자 강화 △지역 우수인력 육성·활용 강화 및 지역문화 확산 △지역기반 창업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등이다. 위원회에서 김병태 위원(대구경북연구원)은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 육성방안을 제안했다. 2015년 12월 울산과 경북이 공동으로 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타당성 검토 지연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김은영 팀장(포항테크노파크)은 포항의 리빙랩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주민생활 문제해결형 R&D 추진전략안’을 발표했다. 김 팀장은 생활 쓰레기, 중간 소음, 주차 문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했다. 노진수 수석연구원(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은 지자체가 과제를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매칭하는 지역수요 맞춤형 R&D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주도형 R&D 추진전략안 제안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의 절차와 사례 소개, 예타통과 전략 등을 제시했다.

국내 초보단계 청색기술, 경북도 선점 나선다

청색기술 융합산업 허브 구축
혁신성장·미래동력 확보 앞장

경북도의 ‘청색기술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21일 대구청사(옛 경북도청)에서 열렸다.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경북 청색기술자문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가차원의 청색기술개발과 산업화 거점확보를 통한 청색기술 융합산업화의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용역은 경북도가 청색기술을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할 신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타당성 연구조사를 진행해 왔다. ■미래산업 먹거리 육성 발굴 도는 청색기술을 혁신성장과 미래산업 먹거리로 육성 발굴하기 위해 △포항 △구미 △경산 등 지역별 첨단전략산업과 연구기관 등 핵심역량 기반을 최대한 활용, 국내 청색경제 혁명의 선도적 역할을 주도한다.

도가 추진하는 ‘청색기술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연구기관-대학 연계형 청색기술융합산업과 기반확충 △청색기술 연관산업 중심의 특성화된 기술개발 거점확보 △특성화 영역중심 청색기술개발과 R&D 협력 네트워크 구축 △청색기술제품 시험 인증시스템 구축과 비즈니스 기능강화 △사회시스템 통합화를 선도하는 개방형 기술혁신체계. 도는 생태계조성과 기술융합화 및 기술개발체계 구축에 초점을 둔 기술주도형 클러스터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이다.

기술개발의 지원형태는 Top-down(지정공모)과 Bottom-up(자유공모)을 병행해 과제의 규모에 따라 국비 지원액과 과제수를 결정한다. 연료 효율을 이용한 섬유, 나비목 사막의 풍력터빈을 이용한 물 제조, 홍합의 접착성 단백질을 이용한 습식 접착제 등이 대표적인 예다. 광업, 건설, 섬유, 화학제약, 수송장비, 보관/물류, 폐기물 처리, IT산업, 엔지니어링 산업, 건축설계,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화가 가능하다.

■5조 원 규모 시장창출 예측 미국의 컨설팅 전문기관인 FBEI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시장 3500억 달러, 세계 시장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5조원 규모의 시장창출이 예측되고 있다. 경북도는, 청색기술은 아직 세계적으로도 결핍 단계이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 정책이 부처별로 따로 진행되고 있어 전문적으로 연구할 기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故 박정희 대통령 국토녹화 사업 ‘영원불멸’

경북도, 40년간 ‘포플라 장학금’
고교생 1306명 4억3200만원 지급
미래 산림 꿈나무육성 크게 한몫

경북도가 미래 산림 꿈나무 육성에 한몫 하고 있다. 실제 40년간 포플라 장학금 1306명을 선발, 장학금을 수여했다. 올해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도내 입업인 자녀와 산림 특성화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범 학생 20명을 선발했다. 도는 21일 도청에서 학생,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플라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장학금을 100만원씩 지급했다. 1978년부터 올해까지 1306명에게 4억3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포플라 장학금’ 재원은 1967년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사업 현직시절 중에 하사한 격려금으로 국토녹화 취지를 기리기 위해 칠곡군 북삼읍 낙동강변에 이태리포플라를 식재, 1977년 벌채-매각한 수익금으로 기금을 만든 것이 시초다. 이후 △순환 수렵장 운영 수익금 △도유림 입목 매각대금 △도 출연금 △기타기금 등을 추가, 현재 15억5200만원을 경북도통합관리기금에 적립,이자 수익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경북도는 장학금 설립취지를 살리고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2014년부터 3년간 도 출연금 12억원을 기금으로 편성했다.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포플라 장학금을 선발, 미래 산림 꿈나무를 육성, 애림의식을 드높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국토녹화’ 정책을 계승·발전시키면서 국민들의 산림복지향상을 위한 풍요로운 숲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부터 동절기 공사 중지 도, 공사장 안전관리 만전

22일부터 동절기 공사가 전면 중지된다. 도는 21일 동절기 현장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위해 콘크리트 공사 등 동해가 우려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을 전면 중지한다고 밝혔다. 공종상 부득이 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감리(감독) 입

회하에 시행한다. 도는 도로결빙, 폭설 취약 지역 등에 모래주머니, 염화칼슘을 두는 등 통행 안전사고 예방에도 빈틈이 없도록 한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동절기 공사중지는 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시공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겨울철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도 공사장내 노면, 가도를 정비하고 폭설 등의 재해를 대비한 응급복구 장비를 확보하고 비상연락망을 재점검하는 등 도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6차 산업 우수 상품 특설관

경상북도 6차 산업 우수 상품 안테나숍

안테나숍(Antenna Shop)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여 제품 기획 및 생산에 반영하기 위한 매장

경상북도와 지역대형유통업체는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도내 44개 농업 6차산업체가 생산한 한과와 와인, 오미자청, 우유차 등 250여개 농산 가공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지역 대형유통업체가 함께하는 특별한 만남·엄선된 제품들을 만나보세요.

대구현지법인 *대구신세계 | 대구신세계 (지하 1층) | 대백 프라자점 (지하 1층) | emart | 경산점(1층) / 구미점(지하 1층) / 월배점(1층)

당신이 있어 이 겨울 참 따뜻합니다

대구 산으로산악회 사랑의 연탄배달

2017 정유년도 끝자락에 머물렀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의 주머니는 너무 얇아진다. 홀로사는 이들도 외로움에 지친다. 사람이 찾지 않는 마루에 걸터앉아 '뉘'를 쳐다본다. 찾아오는 이 없는 냉골에 빠마디 앙상한 손만 비친다. 쉼 없는 눈을 방문을 응시한 채 혹 누가 올라 기다려 본다.

수은주가 영하권 쪽 떨어진 겨울이 너무나 쓸쓸스럽기만 하다. 까치 울음소리에 방문을 열고 반가운 이 덜컥 문 열고 성큼 들어올것 같은 설레임에 가슴 떨린다. 대구 산으로산악회가 21일 남산 2동에 사는 홀몸노인들에게 사랑의 연탄을 배달했다. 연탄을 건네받은 홀몸노인들은 모처럼 함박 웃었고 외로움에 지친 노인들은 그들의 손을 꼭 잡고 놓아주질 않았다. 고희무 산으로산악회장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통을 받는 사람, 의탁할 자 없으니 홀로 지내는 노인, 불우시설이나 양로원에 수용돼 사회의 온정을 바라는 사람들

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그는 "빠듯한 주머니를 털어 이웃을 도울 때 그 흐뭇한 심정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일이다"고 덧붙였다. 산으로산악회는 사회가 점점 거칠어지고 냉혹해져 가지만 그래도 더불어 사는 세상을 펼치고 있다. 세상 인심이 워낙 따뜻한 구들장 같다. 사는 게 어렵다고 모두들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말 들뜬 분위기에서 한발 짝 물러서서 불우한 내 이웃을 돕는 일에도 앞장서보자. 김진희 기자



대구, 인구 대비 노숙인·무연고 사망자 전국 최다

대구의 인구 1만명당 노숙인 수 4.39명, 서울 3.61명 크게 앞질러

대구지역이 경기도 보다 노숙인 수가 많고, 인구대비 노숙인과 무연고 사망자도 대구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에 따르면 대구지역 2017년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북구 22명, 중구 17명, 동구 17명, 남구 17명, 서구 15명, 달서구 12명, 달성군 5명, 수성구 4명 등 95명에 달한다. 대구지역 노숙인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103명으로 전국에서 서울(3682명) 다음으로 가장 높은 뿐 아니라 인구가 대구(6월 기준 인구 248만명)의 5배가 넘는 경기도(인구 1270만명-노숙인 1002명)보다도 101명이나 더 많았다. 특히, 대구의 인구 1만 명당 노숙인 수는 4.39명으로 서울(3.61명)을 크게 앞질렀다. 대구시는 노숙인 센터와 임시보호시설 등 5 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당수 노숙인들은 시설 생활 초기에 금연, 금주 등의 규칙적인 생활을 꺼려해 좀처럼 노숙인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 열악한 거리생활과 만성질환, 알콜중독,

전염성 질환 등에 노출돼 죽음이 일상화·상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단체 등은 노숙인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그릇된 경기부양책과 고금리 정책, 금융범죄 집단의 탓에 걸려 '신용불량'이라는 현실을 들어 노숙인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 하고 있지만 개선은 요원한 실정이다. 한편, 인권단체 등은 22일 오후 대구 중구 경상감영공원에서 극빈의 노숙상황에서 생을 마감한 노숙인을 추모하고 노숙문제와 현실을 폭로하는 한편 권리실현을 결의하는 추모제를 개최한다. 조여은 기자

현직 경찰관 박봉 쪼개 10년간 남모르게 선행

칠곡군 북삼파출소 이호상 경위

칠곡군 북삼면 북삼파출소 근무하는 이호상 경위는 92년 순경공채로 경찰에 입문해 25년을 경찰에 몸담고 있다. 초임 시절 북삼파출소에 근무한 이 경위는 15년 동안 칠곡경찰서에서 수사행사로 근무했다. 수사행사 시절인 2017년에는 범인검거 유공자로 국무총리상을 표창 받아 경위로 특진해 현재껏 근무중인 북삼파출소에 근무 중이다. 이 경위는 북삼파출소에서는 현직사정에 맞

게 줌도독 예방을 위한 새벽시간 순찰, 새벽 귀가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순찰차로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등 주변의 신망을 받고 있다. 북삼면 주민 김연수(남·55)는 "이 경위는 힘들고 귀찮은 일을 찾아 솔선수범 할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이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 이 경위는 차매로 고생하는 모친의 수발에도 불구하고 박봉을 쪼개 10년 동안 대구시 월성복지회관에 교복후원,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계속 해왔으며, 올해는 김치 담그기 행사에 참여하는 등 선행을 펼쳐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호상 경위는 돌아가신 외삼촌의 경찰모습이 멋있고 보람돼 보여 입문해 경찰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자신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임할 것 이며 특히 주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참문시정과 자동차 문도 꼭 시정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 드린다"며 자신은 지금까지 해 왔듯이 퇴직하는 그날까지 묵묵히 선행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경찰관으로 남는 것이 작은 바람이라고 말했다. 조여은기자

대구서 보이스포싱범 잡은 '용감한 고교생들'

대구오성고 전지환, 라 연 군

용감한 고교생들이 경찰과 함께 보이스포싱범을 검거해 화제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오성고등학교 전지환(19) 군과 라 연(19) 군이 경찰관을 도와 보이스포싱범을 검거해 서장상을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0시 30분께 대구에 사는 A(30·여) 씨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포싱 전화를 받았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10분께 수성구 범어동의 한 커피숍 앞에서 금융원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B(35) 씨를 만났다. A 씨는 현금 2200만원을 B 씨에게 넘기려고 하던 순간 수상함을 느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B 씨는 도주했다. A 씨는 달아나는 B 씨를 쫓았지만 잡을 수 없었고 인근을 지나던 전 군과 라 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두 학생은 B 씨를 쫓기 시작했다. 자전거를 끌며 걷고 있던 전 군은 자전거를 타고 범인을 쫓았다. 전 군은 버스에 B 씨가 탄 모습을 목격했고 이를 라 군에게 전했다. 라 군은 경찰에 이사



실을 알렸다. 출동한 경찰관은 당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B 씨를 붙잡기 위해 버스에 올랐지만 B 씨는 버스에서 내려 도다시 도주했다. 전 군은 자전거를 타고 B 씨를 끝까지 추적, 점퍼 모자를 낚아채 넘어뜨렸다. 결국 B 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B 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현금 수거 등을 지시한 보이스포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류재현 기자

울릉도 어민 오징어 특수에 싱글벙글

중 어선 1440여척 철수 오징어 잡이 반짝 특수

때지어 다니며 어자원을 씹쓸이하는 중국 어선들이 동해안에서 사라지면서 오징어 조업이 반짝 특수를 맞고 있다. 21일 포항시 울릉도 등에 따르면 올해 오징어잡이를 위해 북한 수역으로 들어갔던 중국 어선 1700여척이 이달 초부터 상당수 철수했다. 동해안 오징어는 10월~이듬해 1월까지 잡히며, 12월 초에는 울릉도 부근을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된다. 어민들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북한 수역에 들어갔던 중국 선단 중 1440여척이 철수했고 현재 200여척이 동해안 일대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최대 오징어 전진기지인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는 중국 선단이 철수하면서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다. 구룡포항에는 채낚기 등 70여척의 오징어 선단이 활동 중이다. 중국 어선들이 몰려갔지만 성어기 때보다는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 구룡포 일대에서 잡힌 오징어는 올해 11월 까지 6839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189



톤보다 30% 가량 감소했다. 어민들은 대규모 중국 선단이 철수했고 오징어떼가 점차 남하하고 있어 이달 어획고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징어 수확이 급감하면서 건조오징어 가격이 크게 뛰었다. 포항 죽도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건조오징어 1축(20마리)은 현재 5만5000원~8만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30% 가량 올랐다. 허창호 죽도시장상가변영회장은 "앞으로 오징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문경서 규모 2.0 지진 기상청 '피해 없을 것'

21일 낮 12시 1분께 문경시 북서쪽 21km 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지는 북위 36.72도, 동경 128.01도 지점이다.

대구기상지청 관계자는 "이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강진 이후 현재까지 포항에선 총 70차례의 여진이 났다. 규모별로는 2.0이상~3.0미만이 64회로 가장 많았고 3.0이상~4.0미만이 5회, 4.0이상~5.0미만이 1회다. 이은진 기자

문화융성
관광에서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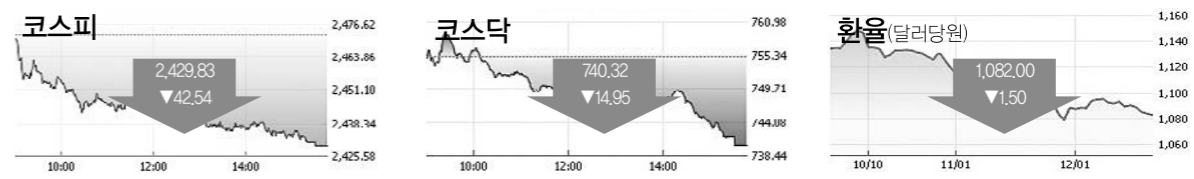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청소년 불법 인터넷 도박은 범죄행위이며, 미래까지도 갇히게 됩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청소년 불법 인터넷 도박! 재산은 물론 행복, 꿈, 미래까지 영영 못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보다 건전한 스포츠를 즐기세요!

불법도박은 이용저도 함께 처벌받는 범죄행위이며, 불법 사행행위를 신고(☎1855-0112)하면 최대 2천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외투기업 2곳 유치

중국~베트남까지 외투 유치 확대 수성의료지구 1300만불 투자 성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외투기업인 (주)오에스티, 대영전자(주) 등과 투자 협약 양해각서를 맺었다. 테크노폴리스지구 12번째 외투기업을, 수성의료지구에는 2번째 외투기업 유치를 성사시켰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총 11개 국가로부터 22개의 외투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끌어 내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구 지정 후 해제 위기에 있던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다. 외투기업 유치 성과는 현재 활발히 사업 지구를 조성하고 있는 2개 지구에 대한 외투유치활동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주)오에스티
(주)오에스티(대표 권영길)는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를 제조하는 업체다.

LG전자 등에 생산품판매에 이어 더 중국의 대형 일감 사업과 연계 중국 파트너사의 750만 달러 투자를 포함, 155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 기계를 생산한다.

생산된 완제품 대부분은 기존의 LG전자 납품 이외에 삼성전자와 중국에까지도 확대, 납품한다.

공장확장으로 기존에 경기 평택과 충남 천안에 있던 인력과 장비를 흡수 통폐합, 향후 신규고용 인원 120명 외에 추가로 고용창출이 되는 효과로 청년고용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영전자
대영전자(주)(대표 백서재)는 베트남 NTD



그들과 손을 잡고 합작기업을 설립한다. 수성의료지구에 대영전자(주) 본사를 이전하고, 광주, 수원, 평택 등에 나뉘어 있던 기업부설연구소를 동 지구에 통합R&D센터로 설립한다. 외투 550만불을 포함, 총 300억원을 투자계획과 창출되는 신규고용 예상인원은 250명에

달해 지역인재를 상당수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우리 지역으로 이전해 오는 기업들에게 지역의 유망 기업들과도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공장준공과 본사, R&D센터의 착공에서부터 입주까지 빈틈없이 지원,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인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베트남 투자유치에 이어 "앞으로 추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다각적인 투자유치 계획을 세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진희기자

경북게임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선구자

경북도, 게임 콘텐츠 전문인력 100명 양성

경북도는 21일 경산시청에서 경산시, 경북테크노파크(원장 이재훈), ㈜IGS(대표 양유진)와 경북 콘텐츠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경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사업비 10억원(도비 5, 시비 5)을 투자해 게임콘텐츠 전문인력 100명을 양성, ㈜IGS와 관련기업에서 이수자 전원을 채용한다. 게임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주관하는 ㈜IGS는 250여개 이상의 국내외 게임서비스 경험과 비법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EOS사업,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QA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비법을 검증 받은 바 있는 게임전문업체다. 주요 협약내용은 △게임 전문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양성 △경북 게임콘텐츠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100개) 창출 △게임 콘텐츠산업 정책 수립 및 정보교류 △㈜IGS사 경산지사 설립 등이다. 도는 업무협약에서 도내 게임콘텐츠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 게임인력과 기업이 유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게임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경북지역이 게임산업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은 물론 젊은이들이 경북을 떠나지 않고 머물고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경창 경북도 창조경제산업실장은 "게임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긴밀한 통신망을 구축,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경북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간다"는 의지를 보였다. 변창상 기자



대구시, 스타기업 12곳 신규 선정

대구지역 강소기업 총 87개사 선정 육성

대구시는 혁신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구 경제를 이끌어 갈 2017년도 신규 스타기업 12개사를 선정해 22일 오후 호림인터볼고엑스코에서 권영진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서 수여식을 갖는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9월말 지역의 중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스타기업' 모집 공고를 내고 총 40개사의 신청을 받아 재무·기술·경영 전문가로 구성된 스타기업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스타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내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지역스타기업 육성사업'의 롤 모델 사업인 대구시의 '스타기업 100 육성사업'은 현재까지 지역 강소기업 75개사를 선정·육성하고 있으며,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12개사를 포함하면 총 87개사가 된다. 이번 선정평가에서는 대구를 대표하는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기준을 뒀으며, 기술력과 시장성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기업가 정신 등 CEO의 성장의지에 대한 평가에도 중점을 뒀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현황을 살펴보면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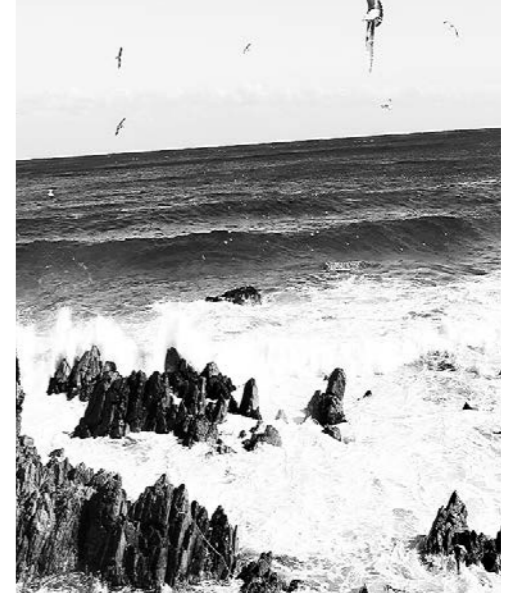
년 기준 평균 매출액이 290억원, 평균 수출액은 77억원, 종업원 수는 95명으로 나타났고 산업분야별로는 기계·금속분야에서 4개사, 전기·전자분야와 소재분야에서 각각 2개사, 섬유·바이오·IT·기타분야에서 각각 1개사씩 선정됐다. 대구의 전통 주력산업에서 뿐만 아니라 미래 신성장산업에서도 선정기업 전체 30%를 차지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기계·금속분야에서는 '동광광풍모터', '로얄정공', '신성에스앤티', '신한정공'이 선정됐고 전기·전자분야에서는 '거림테크'와 '명성티엔에스'가, 섬유분야에서는 '나경', IT분야에서는 '한아이T', 바이오분야에서는 '유천당', 기타분야에서는 '부호체어원'이 각각 선정됐다. 대구시 스타기업은 총 87개사로 향후 경영개선 로드맵 컨설팅지원, 기술사업화와 국내외 마케팅지원, 중앙 R&D 공모과제 기획·컨설팅지원 등 대구시의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게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는 스타기업이 대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육성지원기관과 협력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더 많은 기업지원책들이 스타기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경북도, 환동해 바다시대 꿈을 안고 달린다

마리나산업 레저휴양 동시 충족하는 미래 산업 육성

경북도는 21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사)경북해양포럼과 공동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산업의 역할'이란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열었다. 학술 토론회에서 고용확대로 연결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해양수산산업육성 정책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마리나 서비스산업 발전방향(KMI 홍장원) △수산업 고용확대 방안(한국노동연구원 강승목) △해양병원체 연구현황 및 상용화(KIOST 이택근) △해양탐사장비 사업화(포스텍 조현우)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해양수산 전문 패널 등과 함께 일자리 마련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심도있는 질의·토론에서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4차산업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양질의 일자리가 보다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북도는 해양산업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깊게 인식하고 있다. 미래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다져가고 있다. 도는 그동안 해양물류산업 육성에 2조 8000억원 규모의 포항 영일만항 개발사업을 추진, 접안시설 16선석, 방파제, 항만배후단지 등 건설에 48%의 예산을 투입했다. 마리나 산업은 레저와 휴양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다. 경북도는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도 마련 중이다. 지난해 8월 553억원의 사업비로 착공한 후포 마리나는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진행 중이다. 심해탐사기술개발, 해양과학연구벨트 조성, 수산물 산지가공·저장시설, 수출전략품종 육성 등 해양수산 산업 인프라 확충과 수출경쟁력을 갖춘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꾀하고 있다. 김경원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내년 초 환동해 지역본부 출범과 더불어 동해안 해양수산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09년 발족된 경북해양 공개 토론회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해양수산 시책사업 발굴과 정책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강동진 기자

포스코, 친환경·고효율 선박 새 장 열어

LNG 추진선 연료탱크 세계 첫 고방간강 적용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LNG추진선 연료탱크에 자체 개발한 고방간강을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 포스코와 일신로지스틱스는 22일 현대미포조선 5만톤에서 포스코의 고방간강으로 만들어진 연료탱크를 탑재한 LNG추진 벌크선 명명식을 가진다. LNG 연료 엔진을 탑재해 친환경 선박이라는 의미로 '그린아이리스(Green Iris)'호로 명명된 이 LNG추진 벌크선은 세계 최대 규모인 재화중량톤수(DWT) 5만 톤 급 선박으로 친환경·고효율 선박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선박의 연료탱크에 사용된 고방간강은 -196℃의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어 LNG의 저장 및 이송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기존 탱크 제작에 사용되던 니켈강, 알루미늄 합금

등의 소재 대비 용접성이 우수하고 가격경쟁력이 뛰어나다. 포스코가 2000년대 후반부터 10여 년 간의 연구 끝에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했으며, 포스코가 자랑하고 있는 월드프리미엄(World Premium) 대표 제품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선박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로 LNG추진 선박의 건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LNG탱크용 고방간강 수요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스코의 고방간강이 세계최초로 적용된 LNG추진선 그린아이리스호 시운전 모습

구미 1국가산단 첫 재생사업지구 승인

첨단 복합산업단지 탈바꿈 2021년까지 기반시설 확충

구미 1국가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는 처음 국토교통부로부터 재생사업지구로 지정·승인을 받았다.

국내 최초의 내륙 국가산업단지인 구미 1국가산업단지는 재생사업지구 승인으로 경쟁력 강화와 첨단복합산업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1973년 준공된 1국가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시장 재편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섬유, 전자부품 등 일부 업종에서 휴업이나

폐업 업체가 속출해 미래 전략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구미시는 노후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등을 구성, 정부에 건의해 2014년 노후산단 재생사업 2차사업지구 대상지로 선정됐다. 구미시는 2021년까지 1국가산단과 금오테크노밸리, 광평천, 낙동강변 제방도로 등에 국·시비 484억원을 들여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산업지원기능을 확대해 계획이다. 이은진 기자

포항시, '채무 제로' 목표 재정 건전화 온힘

민선 6기 들어 지방채 조기상환 663억원 절감 재정건전성 확보

포항시는 민선6기 출범 이전인 2014년 6월 말 기준 1,416억6천3백만 원이었던 지방채를 올해 말 기준 753억5천5백만 원으로 663억8백만 원(46.8%)을 줄이면서 '채무제로'를 목표로 지방채 조기상환 등 재정 건전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에도 원금 223억9천5백만 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포항시는 10년 이내 '채무제로'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의 이 같은 노력은 지난 2014년도의 예산이 1조2,827억 원에서 2017년도에 1조 5,736억 원으로 약 20%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지방채 발행규모가 크게 줄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재정 건전성을 위한 포항시의 노력은 부동산 등 보유재산의 매각 대신에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해 60억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하는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배분 등 공공개혁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의미 있으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된 하수관거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사업의 경우 지방채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인 재정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민선6기가 시작된 2014년부터는 모든 하수관거사업을 국비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이자부담을 크게 줄이는 한편, 보다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을 실현하게 됐다.

포항시는 앞으로도 매년 세입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불편 해소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업 외에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채무관리와 세출구조조정에 힘쓰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6기 이후 선택과 집중의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세출조정을 통해 지방채 발행 억제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재정수요가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해 지속적인 채무관리와 세입확충, 예산의 효율적 편성으로 시민의 형세가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동진 기자



포항지역발전협의회 회장 허상호(가운데)가 21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회원들과 함께 지난달 15일 발생한 포항지진 피해 복구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지진 피해 신속 복구 정부가 나서라”

(사)포항발전협의회 기자회견

(사)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과 회원들이 21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발생한 규모 5.4지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역민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허상호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은 “포항

은 철강 산업 위축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속에서 근근이 버텼는데 지진 악재로 서민생계의 중심인 축도시장 등 전통시장의 상권이 붕괴되고 있다”며 “지진으로 총체적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와 지진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는 단호하고 성의 있는 대응을 간절한 심정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동진 기자

경주시보건소, 건강새마을조성사업 성과대회 모범기관

지역주민 맞춤형 사업 추진 지속가능한 전략 모색 기여

경주시 보건소가 21일부터 22일까지 코모도 호텔에서 열린 경북도 주관 건강새마을 조성사업 성과대회에서 모범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날 경주시 보건소의 모범기관상 수상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건강위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전략 모색에 크게 기여한 결과이다.

경주시 보건소에서 진행했던 월성동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에서는 사업기반을 조성키 위해 건강취약지역의 주민들을 조직화하고 월성동 건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사회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건강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공헌했다.

이날 성과대회는 우수사례 발표와 특강 및 17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 및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장희 보건소장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3개년에 걸쳐 월성동 건강위원회와 주민 스스로가 주도가 돼 주민참여형 건강마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건강하고 행복한 경주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북도가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경북 331개 읍면동의 3년간(2008년~2010년) 표준화 사망률 분석 결과, 지역 간 건강격차 감소 해결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내에서 표준화 사망률이 높고 건강취약 인구가 많은 도내 20개 지역에 대해 2014년부터 건강새마을조성사업을 시작해 2017년에는 27개 지역으로 확대·추진한 가운데, 경주시는 2014년 황남동에 이어 올해 월성동이 선정된 바 있다. 윤용찬 기자



경주시 공직자 2018년 청렴도 향상 교육

올해 청렴도 분석·내년 시책 소개 청렴도 향상 위한 지속 노력 다짐

경주시에서는 20일 시청 공무원 700명을 대상으로 알천홀에서 '2018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2017년 청렴도 측정 결과(국민권익위원회 시행)에 대한 분석과 2018년에 추진할 다양한 시책에 대해 소개한 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주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내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컨설팅 신청과 청렴 서약 결의대회 개최, 청렴도 조사시스템 운영, 청렴자

가학습 일상화, 취약분야 청렴교육 확대 실시, 청렴 골든벨 개최, 청렴계단 조성, 익명신고 시스템 활성화, 청렴 우수시책 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철구 부시장은 “청렴도가 하락한 것에 대해 매우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직원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변화하고 꾸준히 노력해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것이고 그 결과가 청렴도 향상을 이끌 것”이라며 “부시장인 나부터 노력하겠으며 이번을 계기로 반성하며 재도약의 계기로 삼자”고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을 당부했다.

남윤호 감사관은 이날 교육을 진행하며 “청렴도 측정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청렴은 공무원이 갖춰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인 덕

목으로 이 자리를 통해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내년에 추진할 청렴도 시책에 대해 전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통해 시정구호처럼 ‘품격있는 도시, 존경받는 경주’를 실현하는 데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경주시는 지난 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청렴도 측정에서 종합청렴도 6.78점(5등급)을 받았고, 지난해는 7.49점(3등급), 2015년 7.40점(4등급)을 기록했다. 윤용찬 기자



포항시, 야외스케이트장 23일 개장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 나서 1500㎡규모 300여명 동시수용

포항시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고 지난 11.15 지진피해로 상처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도심 속 겨울스포츠를 만끽할 수 있는 야외스케이트장을 오는 23일 문을 연다.

포항시는 겨울 스포츠 불모지인 우리 지역에서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낭만을 즐길 수 있도록 종합운동장 시민불링장 뒤편 주차장 부지에 야외스케이트장을 설치했다. 강동진 기자

총사업비 2억5000만원을 들여 3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1500㎡ 규모의 스케이트장과 썰매장, 그리고 부대시설 등을 설치했으며, 이달 23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45일간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이용요금은 2000원(입장료 1000원, 스케이트 및 썰매대여료 1000원)으로 휴게소 및 매점 등 각종 편의시설도 갖추어 남녀노소 모두가 부담 없이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동진 기자

경주시, 'Beautiful' 빠져 직원용 수첩 전량 반품

경주시가 연말이면 제작·배포해오던 직원용 수첩(노트북)이 올해에는 전량 반품되는 해프닝이 연출됐다.

경주시는 매년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직원수첩(가로20cm, 세로 26.5cm) 2000권을 제작해왔다.

지난 15일 2018년도 직원수첩을 납품받아 배부하던 중 표지 로고가 원래 Golden City Gyeongju에서 Golden City Beautiful Gyeongju로 바뀐 것을 발견하고 이미 배부된 수첩 회수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본래 경주시의 슬로건은 Beautiful Gyeongju였으나 2016년도부터는 Beautiful를 뺀

Golden City Gyeongju를 공식 슬로건으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알고보니 수첩을 주문받은 인쇄소에서 표지 로고만 제작하는 대구소재 다이어리 전문 업체에 의뢰했는데 이 업체가 로고파일을 2016년도가 아닌 2015년도 파일에서 다운받아 표지를 제작함으로써 발생한 실수라는 것.

이에 대해 시민 K(58·성진동)씨는 “Beautiful이 표시됨으로 훨씬 더 아름다운 경주를 상징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 하나 때문에 다시 제작한다는 것은 경직된 공무원 사회상을 반영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포항을 업그레이드하는 힘이 됩니다.

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으로 기초질서 지키기를 생활화합니다. 남을 위협하는 나쁜 운전습관, 도로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교통규칙 위반, 음주운전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의 같은 사회병리 현상을 치유하고 시민의 역할을 하나로 모으는 도덕적 힘의 원천입니다. 정직, 약속, 질서, 책임, 배려심이 일상생활의 습관이 되면 기초질서는 우리 자신과 이웃, 사회를 변화시키고 포항을 행복하고 아름다운 '현동해 중심 창조도시'로 성장 시킬 것입니다.

경산 청도 영덕 울진 청송 영양 울릉

광고·구독안내 053257-0000

강동호 전 청도축협조합장 민주평통 의장(대통령) 표창



강동호 전 청도축협조합장이 민주평통 의장(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일 2017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의장 표창 전수식 및 활동평가회의에서 이같은 상을 수상했다.

김성용 기자

영덕풍력발전주식회사 이웃돕기 300만원 기탁



영덕풍력발전주식회사가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영덕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성금은 경북도사회복지공동금회를 통해 관내 복지사각지대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연료비, 집수리사업 등으로 지원한다.

김승건 기자

본사 인사 | 의원면직 기자 채종갑(청도담당) 12월 20일자

청도군 내년 살림살이 3558억원 부강 청도 건설

일반회계 3293억원, 특별회계 265억 군민 생활안정 지역경제활성화 주력

청도군의 내년 예산이 풍작이다. 내년도 살림규모가 3558억원으로 조만간 4000억 시대를 열게됐다. 청도군의회 예결위를 거쳐 지난 19일 '제244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이승율, 부자 청도 건설

이승율(사진) 청도군수는 "내년 예산은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견실히 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큰 방향을 지키기 위해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청도발전을 위한 핵심적 사업들과 복지증진 사업에 초점을 두고 인구 고령화, 농업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경쟁력 확보에 교두보를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고품질 생산기반확충 △군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 △안전한 청도 구현의 재해 예방사업 △지역균형 발전 SOC사업 등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주요 투자 분야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전체예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71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했다. 군은 군민이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는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 △권역별 맞춤형 복지실현 △출산·양육 지원 △치매극복 관리사업 등에서 노인·여성·청소년·아동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행복청도"를 만든다.

△농업·경제 분야

전년대비 29억원 증가한 512억원(14.4%)이다. 포장규격 개선으로 가격안정화를 꾀한다.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 등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가공·유통라인 구축, 판매·홍보에 열을 올린다. 무엇보다 6차산업 활성화로 선진 농정구현과 '부자청도 만들기'에 행정력을 모은다.

△문화 관광분야

41억원 증가한 336억원(9.5%)이다. 한국코미디타운, 청도레일바이크,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신하랑풍류마을, 자전거공원 운영으로 청도를 고품격 체류형 관광명소로 성장시킨다.

청도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행사인 소싸움축제, 반시축제, 세계코미디아트큰잔치를 경쟁력 있는 명품축제로 육성한다.

이런 예산으로 청도군은 '품격있는 관광 도시 청도'로의 추진동력을 마련하는 기틀을 다졌다.

△환경보호 분야

환경보호 분야에는 359억원을 편성했다. 상하수도과 수질 관리 등이 포함됐다. 운문댐 맑은물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정주여건 개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한다.

이밖에 국토 지역개발분야는 전년대비 76억원 증가한 364억원(10.2%), '수송 및 교통분야'는 32억원 증가한 132억원, 산업분야는 전년대비 41% 증가한 34억원을 편성, 주민생활 불편을 덜어준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66억원, 예비비 50억원이다. 김성용 기자

경산시,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 닷 올렸다

산학연관 4차산업혁명 공동협력 통신망 구축

경산시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 육성 일감 최종보고회가 지난 20일 노보텔 엠베스터 대구 버건디홀에서 열렸다.

보고회에 최영조 경산시장, 이재준 경북TP 원장, 바이오 전문가 그룹인 4대 분과위원 등 산·학·연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그간 추진결과·분과별 정책과제 보고에 이어 질의·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회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사업 추진과 신정부 국정과제에 부합한 핵심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4차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을 특징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기존 산업과 융합,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

화를 가져올 차세대 패러다임이다.

패러다임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를 말한다.

경산시는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



난 2월부터 5대 전략산업 50여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재)경북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 5대 전략산업의 핵심과제를 구체화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해 총 10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내년부터 국가지원사업화에 총력을 펼친다. 변창상 기자

사회적경제와 일자리창출 정책 탄력

영덕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관한 조례 군의회 통과

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제도화한 '영덕군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영덕군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로 상위법에 준해 운영하던 기존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지원 조례 등이 통합해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

한 생태계 조성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와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등 영덕군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는다.

영덕군이 현재까지 육성한 사회적경제조직은 20곳이다.

인증사회적기업 3곳, 예비사회적기업 3곳, 마을기업 3곳, 협동조합 7곳, 자활기업 4곳이다. 경북도내에서는 9개 시·군이 사회적경제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임승철 새마을경제과장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일반기업에 비해 자립경영이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덕군은 새해에는 더욱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기존 사회적경제기업에는 경영컨설팅(어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객을 상대로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주는 것)과 판로개척 등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지원해해 나간다. 김승건 기자



청도군, 道 투자유치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청도군은 지난 20일 도청에서 열린 2017년도 '경북도 투자유치대상'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패를 수상했다.

청도군은 인근 대도시의 기업체와 투자양해각서(MOU)체결 및 기업유치, 강소기업육성기반구축사업, '1기업 1담당제' 운영, 중소기업 각종 애로사항 및 고충민원 해결, 청도상공인협의회 운영, 산업단지조성 노력, 투자유치에 대한 기관장의 높은 관심도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기업운영에 활력을 불어 넣고, 아울러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성용 기자

영양군, 청소년 어울마당

영양군의 '2017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가 21일 영양군민회관에서 관내 중·고생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끼와 재능을 발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 마련됐다.

장기자랑은 청소년 11개팀이 참여, 노래, 댄스, 밴드공연 등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산 하고, 쇼미더머니5의 실력과 래퍼 'SUPERBEE'와 myunDO'가 출연, 청소년들과 함께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권윤동 기자

Advertisement for Yeongdeok County featuring scenic views, a lighthouse, and the text '21세기 동해안시대 최고의 관광휴양지 盈德 Welcome to Yeongdeok'.

달성군, 마을교육 콘텐츠화로 하나되다

달성교육지원청과 협약 체결 '마을이 학교다'로 상호 소통

대구 달성군과 대구시 달성교육지원청은 21일 마비정벽화마을 농촌체험관에서 '마을이 학교다'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달성군내 문화, 교육자원이 풍부한 마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 콘텐츠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해당마을을 교육공간으로 널리 활용·연계해 마을의 교육적 가치를 제고하고, 달성군 특화형 교육생태계 기반을 함께 마련하기 위함이다. 달성군은 문화, 교육자원 개발이 가능한 마을(인근 체험시설 포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와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달성교육지원청은 상

기 발굴된 마을에 대해 각급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등 체험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홍보, 활동 연계, 공적 지원 역할을 함께 해 가기로 했다. 김문오 군수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달성군 특화형 교육생태계를 함께 고민하고 궁극적으로 전국 최초이자 최고의 마을교육중심지 달성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마을이 학교다'를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마을과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달성군내 문화, 마을, 교육이 상호 소통하는 과정을 거치며 다 함께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군과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마을의 유·무형자원과 이야기 자원을 마주하면서 학생들의 감수성이 증진되고 인성교육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스토리텔, 워크북을 따라 마을을 돌아다니며 탐별로 미션을 수행하는 등의 예유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 및 공동체성 함양은 물론, 어르신 등과의 자스로운 소통을 통해 면대면 교육의 효과도 기대한다. 한편, 달성군은 지속적으로 달성군 내 마을, 역사문화 자원, 경관 자원 등의 아메니티(amenity)를 문화, 관광 분야의 고유한 콘텐츠로 발굴하는 작업을 군 차원에서 진행해왔으며, 가능성이 있는 마을들도 풍부하다. 화원을 마비정벽화마을, 남평문씨세거지, 논공을 약산벽화마을, 갈실마을, 다사읍 강정마을(디아크문화관) 등이 있으며, 가장면 가창창작스튜디오 인근 우록마을, 구지면 도동서원 및 니암고택, 하빈면 묘골마을(육신사), 옥포면 다리목마을, 기세리 총주석씨 집성촌, 송촌리 솔비골, 현풍면 대1리·솔레마을·현풍·곽씨 집성촌, 백년도개비시장, 유가면 용리마을 등 20여개 마을이 저마다 역사적인 내러티브를 간직하고 있다. 조여은 기자



계명대, 가창중과 뮤지컬 인재 양성 손잡아

지역사회 수요기반 협약 체결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선정 공연예술분야 인력 수요 기대

계명대와 가창중학교가 손잡고 뮤지컬 인재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계명대 음악공연예술대학 블랙박스 소극장에서 계명대 산학인재원, 연극뮤지컬전공, 가창중학교가 지역사회 수요기반 뮤지컬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계명대는 최근 국내 최초 뮤지컬 특성화학교로 전환된 가창중학교와 협약을 맺고 △뮤지컬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공동개발 △협약과 관련한 참여기관 간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교류 △기타 참여 기관이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 협력 등을 약속하고, 지역사회의 뮤지컬 인재양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계명대는 연극, 무용, 성악, 악기,

합창 등 뮤지컬 관련 멘토링 프로그램과 진로 체험프로그램 등을 가창중학교에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방대옥 계명대 산학인재원장, 김중호 계명대 연극뮤지컬전공 책임교수, 변태석 가창중학교장을 비롯해 뮤지컬 인재 육성을 위한 각 분야의 책임자들 3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에 앞서는 가창중학교 학생들의 색소폰 공연과 계명대 연극뮤지컬전공 학생들의 뮤지컬 공연도 가져 협약식의 분위기를 띄웠다.



지역학 연구 활성화 위한 연대 구축 앞장

경북대-전남대, 연합학술대회 가족문화와 지역 정체성 확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과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은 22일 전남대 인문대학 이호강의실에서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영호남의 가족문화와 지역 정체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영호남 지역에서 구축된 가족 문화와 지역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공존 가능성을 성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주제발표와 토론,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한의승 외래교수(경북대)가 '영남 남인의 제문을 통해 본 가족의 의미', 김경호 교수(전남대)가 '가족구성의 관계망을 통해 본 16세기 호남유학', 최은숙 교수(경북대)가 '청량산 기행가사에 나타난 유산체험양상과 문화적 의미', 조상현 교수(전남대)

가 '호남의 예향스러움에 나타난 자타의 인식방법'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가족문화와 지역학,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를 주제로 김병인 교수(전남대)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발표자와 토론자 그리고 청중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토론에서는 증가, 족보, 훈맥, 학맥 등 다층적인 가족관계망에 대한 연구 방법론과 연구 방향, 지역학 연구의 방향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우택 영남문화연구원장은 "영호남을 대표하는 지역학 연구기관이 동서 지역 갈등의 프레임을 통해 만들어진 대립구도를 지양하고,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상생의 한국적 미래상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학술대회가 양 대학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뢰 구축의 공감장이면서 지역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대 구축의 학술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희 기자

경북교육청, 선진국 수준 교육환경 조성

농촌지역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내년 3월 초·중·고 7개 학교 개교

경북교육청은 현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의 일환으로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3월 7개의 학교가 개교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김천혁신도시, 구미국가산업 확장단지, 도시개발지구 내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고,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교 4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1교를 신설 및 신설대체 이전하게 된다.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내 고등학교 1교, 김천혁신도시 및 구미국가산업 확장단지에 각각 초등학교 1교, 포항 양덕지구행정리지구 내 초등학교 1교 및 중학교 1교, 구미 문성토

지구행정리지구 내 초등학교 1교가 개교하며, 안동지역 농촌의 소규모 중학교 5곳을 폐교하고 하나의 기숙중학교를 신설해 농촌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번엔 신설되는 7개의 학교는 내년 3월 1일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신설되는 학교는 지난 11월 29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립학교 설치 조례' 심사를 거쳐, 지난 20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으며, 내년 3월 1일 개교를 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관은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학생 유입으로 열악해 질 수 있는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위해, 앞으로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추어 학생들의 교육복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구 기자

영남대 '청색기술 산학융합추진단' 발족

경산시 '청색 클러스터 사업' 공유 지역기반산업 위한 전략방향 제시

영남대는 미래 블루오션 영역으로 각광받

고 있는 청색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 20일 영남대학교 기계관 회의실에서 '청색기술 산학융합추진단'을 발족하고 출발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호진 경산부시장과 백성욱 영남대학교 교학부총장, 박승완 산학협



력단장, 김석영 공과대학장, 신재균 기계IT대학장과 청색기술 원천기술을 보유한 교수진 20여명이 참석. 청색기술을 경산이 선도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

청색기술은 자연에서 생물의 구조와 기능을 착안해 경제적 효율성이 뛰어난 물질을 창출해내는 기술로 자연친화적이면서도 환경오염을 사전 차단하는 혁신적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의 단점인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사람중심 지속가능한 블루오션 산업으로 또 하나의 산업혁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경산에서 추진 중인 '청색기술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공유하고, 지역 기반산업에 부합하는 다양한 전략방향 제시와 전문기법 원천기술을 청색기술과 접목한 국비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으며, 향후 각 전문영역별 실무적 분석을 통해 R&D수요 및 전략사업 발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진희 기자

암 치료 기술! 이제 개인 맞춤형 시대 열다

DGIST 김민석 교수 연구팀 바이오·의리기술개발사업 선정

DGIST는 뉴바이올로지전공 김민석 교수 연구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17년도 5차 바이오·의리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DGIST는 혈중 종양세포의 효과적인 분리를 위한 장비 개발과 환자 유래 세포주 및 이중이식 모델을 개발해 개인별 맞춤형 암 치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혈액 속에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혈중 종양세포에 최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의리기기 원천기술 개발에도 나

선다. 이번 연구과제에는 DGIST 뉴바이올로지전공 김민석 교수를 비롯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혜련 교수, 양산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신용일 교수 등이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혈액 기반 체외진단 전문기업 ㈜사이토타스가 사업화를 진행해 맞춤형 암 진단을 위해 함께 한다. DGIST 뉴바이올로지전공 김민석 교수는 "혈중 종양세포를 정밀하고 신속하게 분리할 수 있는 자동화 원천기술을 개발해 병원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하고자 한다"며 "혈중 종양세포를 분리, 환자 유래 세포주, 이중이식 모델 원천기술 및 의리기기 개발 등 관련 분야 연구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암 치료 기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교육청, 1월 1일자 정기인사 5급 이상 지방공무원 38명 대상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정년퇴직, 교육과건 등에 따른 결원 충원 및 전보 등의 인사요인에 따라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해 2018년 1월 1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공로연수 파견에 따른 지방서기관 1명 승진을 비롯해 지방서기관 교육과건, 사무관 7명 승진 등 총 39명이 임용됐다. 이번 인사는 원활한 업무 추진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업무능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로 행정수요와 변화에 대응하고, 예산 편성 등 학기초의 학교 실정을 감안해 전보를 최소화했다. 아울러, 6급 이하의 인사는 26일에 실시할 예정이며, 학교현장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책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투명한 인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김진희 기자

구미교육지원청, 교원업적평가 평정자 연수회

교원 평가 정확성·공정성 제고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노승하)은 21일 구미초등학교 정보영재실에서 구미 관내 유·초등학교 교(원)장 53명을 대상으로 '2017학년도 교원업적평가 실시를 위한 평정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교원업적평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경산 하양초등학교 김규석 교감의 강의로, 평가의 공정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과 규정을 확인하고 위원회 조직 및 평가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새롭게 개발된 교원업적평가 지원 프로그램 활용 연수를 통해 학교별 상황에 맞는 내실 있는 연수가 됐다. 김규석 교감은 교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모두 신중하고 정확한 평가, 충분한 토의와 합의에 의한 평가 등 교사가 만족하는 평가가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은진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지역신문발전위원회
Local Press Commission

지역신문을 보면 지역이 제대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을 제일 잘 아는건 '지역신문'입니다.
지역신문을 읽는 당신,
내 고향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문구독, 아는만큼 '힘'이 됩니다.

